

60

2024 봄



정태춘



송태웅

권두언 이태관 기획특집 정태춘 박은옥 신작시
백인덕 이민호 김 경 송태웅 조성웅 조길성 이서화
유은희 김명이 김종애 권기만 이외현 이완근 한상호
안은주 이선정 김 늘 김성백 박영선 우 주 버리영
김혜정 정내하 특집시 양선희 시가 오다 손한숙 오늘
의 주목할 시인 윤종영 안차애 시인의 편지 석민재
신인 특집 임후성 문지아 지난 계절의 시 읽기
이화영 제7회 디카시 신인우수작품 공모 김용길
에바 라티파 2024년 봄, 시경에 온 책

시와 경계



이서화



우 주



시와경계사

시와 경계

2024년 봄호
통권 제60호

발행인 최광임 | 편집인 김남규
주 김 김광노 | 부주간 전용희
편집장 김정희
편집위원 임동혁 송찬호 이태관 윤의섭 최금진

권두언

012 이태관 그 속에서 행복하기를

기획특집

016 정태훈 박은옥 시로 노래하고, 노래로 시를 하라
020 12집 새 앨범 『만들레 시집』 노랫말 10편_기러기 외 9편
051 노트_아, 기구한 나의 노래들

신작시

054 백인덕 블랙홀과 컵라면 외 1편
059 이민호 삼척 행 외 1편
061 김 경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외 1편
065 송태웅 새들은 외 1편
068 조성용 배인 자리가 아무는 것 같아 외 1편
075 조길성 기일 외 1편
077 이서화 이름이면 흙탕 외 1편
081 유은희 호신 세탁소 외 1편
085 김명이 금요일의 백지 외 1편
089 김중애 단수 외 1편
093 권기만 빈티지 의계인 외 1편
099 이외현 나이트-1 외 1편
101 이완근 꺼안다 외 1편
104 한상호 상선약수(上善약水) 외 1편
107 안은주 사랑하는 우리 외 1편
109 이선정 역적 외 1편
113 김 늘 농장을 탈출한 꿈같이 외 1편
116 김성백 녹슨 풀 외 1편
121 박영선 구작 영화 외 1편
126 우 주 사람 속에 고양이들 넣어두고 외 1편
130 버리영 불을표 외 1편
135 김혜정 안부 외 1편
137 정내하 이말 외 1편

특집시

144 양선희 꽃에 관한 진담 외 9편
162 산 문_바람을 얻는 방식

시가 오다

166 손현숙 봄 이야기—박인환 시인의 시 『봄 이야기』

오늘의 주목할 시인

170 윤종영 신작시_월요일 외 3편
176 등단시_조선일보를 보며
178 대표시_지인(知人)
179 산 문_결기의 시학
182 안차애 신작시_결, 맨발로 걷기 외 3편
191 등단시_사랑감을 찾아서
193 대표시_조록을 임마라고 부를 때
195 산 문_시의 빛과 그림자

시인의 편지

198 석민재 저는 깊은 슬픔을 받고 있습니다—전유호 선배님께 보내는 편지

신인 특집

204 임후성 신작시_예술가에게 외 2편
210 산 문_봄비
213 문지아 신작시_80년동인의 분만 외 2편
218 산 문_인테그랄integral-이 아직, 되어가는 중이다!

지난 계절의 시 읽기

222 이화영 발의 허기, 그 견고한 결속

제7회 디카시 신인우수작품 공모 당선작

237 김용길 당선작_가난한 무기 외 3편
241 당선소감_요란 될 것 없다, 한 줄로만 남으리
244 배아래파 당선작_디카시 외 3편
248 당선소감_색다른 위로
249 김종희 디카시 발원 20주년에 만나는 두 시인

2024년 봄, 시경에 온 책

252 강연호 『하염없이 하염없는』 외 45사 시집



김태순

기획특집

오랫동안 노래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곤 다시 노래를 만들게 되고, 그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까이 골라 세 앨범을 발표하게 되었다. 아, 가구한 나의 노래들. 7년 여 노래 만들기에 매달려 있었다. 새삼스럽게 정말 좋은 노래를 만들고 싶어, 세박디가터를 들고 앉아 세 노래들을 만들었다. 나의 노래는 음악일까, 시일까, 나의 노래는 문학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오랫동안 나의 눈에 들어왔던 이 땅의 문학적 영감을 이제 다른 누군기의 눈으로 흘러들게 할 수 있을 만큼.



강선희

특집시

나는 비를 부르는 도구를 몇 개 가지고 있다. 강철로 만든 내 커모드 큰 풍차, 라디오 산로 오색강철 티르초charchog, 이국적인 천에 새겨진 비림의 경전들... 변화가 필요할 때 나는 꼭이 긴 천을 두 개기 등에 매달아 비림의 통로를 만들어 비림의 길을 본다. 그렇게 의자를 놓고 앉아 눈을 감는다. 내가 이토록 비림을 편애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건 비림만 갖는 역동성 때문이다. 나는 비림길 같은 미움의 움직임에 추수를 세운다. 이것이 시의 영감을 얻는 내만의 방식이다.



김용길

디카시

어릴 적 어른들은 빈민 살아온 게 소심책 열 권으로도 다 읽어당지 못한다. 했습니다. 풀어부긴 한강물 같은 대하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유년 시절 어른들은 다 어디로 가셨을까. 주변에 현실의 어른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지하실 터민 절민이 어문양-다. 어른들은 부쩍 말수가 줄었고 눈 감고 있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세 휴대편 화면에 중일 파동혀 십니다. 세상 떠도는 소식은 넘쳐 나지만 알아들은 밑파 이 해되는 글은 줄어만 갑니다. 제라라 증연내고 있지만 아무도 학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대합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TV만 쳐다봅니다.



에바 라티파

당연히 디카시 볼 때 부담이 갑니다. 디카시를 창작한 경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잘 쓰지 못한다는 말을 들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또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인 나의 작품을 이해하는 이는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만 디카시를 창작하면서 내가 얻은 위로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학생들과 디카시를 열심히 쓰겠다고 다짐하며, 용기 내어 한국의 집지에 디카시 원고를 보냈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공감과 미움은 디카시로 나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너를 그것과 바꿔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고요함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찾아오는 아름다운 속삭임 작고 여린 존재들에게 건네는 총총하고 따뜻한 눈길

최선을 다해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자의 시선은 결코 공격적일 수가 없다. 누구보다 순하고 선한 마음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 이 그의 시에 와치는 일상처럼 벌어진다. 카지시는 주체와 대상이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의 자리를 사이좋게 바꿔가며 환태 어울린다. 관동이나 분얼 리는 거리가 먼 화자의 시에서 세상 일깨워지는 감정도 그래서 맑음이고 환함이다. 그 맑음과 환함을 확인할 수 없는 마음이 또 그의 시를 읽게 할 것이다. **같은 시인**

한시집 496
너와 바퀴 부를 수 있는 것
강유근 시집

“영원이 시작되는 지점처럼 환하게 뚫려 있는”

살과 사랑이 흐르는 언어의 은하수 수많은 '너'를 잇는 '나의 이야기'

시도가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일구가 되고 출구가 되는 무한하고 자유로운 흐름, 날짐승이 이번 시집에서 가족과 이웃, 과거와 현재, 개인과 역사, 문화적 세계와 권태적 일상, 기억의 삶과 망각의 삶 등을 넘나들며 우리를 초대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과 사랑이 흐르는, 흘러야 하는 것이다. **김수미 문학평론가**

한시집 497
한밤의 트램펄린
날짐승 시집



“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도시에 뿌리내렸지만
 각자의 마음속 나무와 공명하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간직한 채 살아간다.

”



배교운 시인의 첫 번째 산문집

『나무가 나를 찾아오는 날에는』

도서출판 백조 | 196페이지 | 15,000원

배교운 시인의 나무 이야기를 들으며 내 마음속 나무는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들려 문득 올려다본
 머리 위엔 나무 한 그루 한결같이 서 있다.

— 남승원 문학평론가

도서 문의 Tel 031-8015-0705 | Email baekjo1120@naver.com

기획특집

정태춘 · 박은옥

정태춘·박은옥 시로 노래하고, 노래로 시를하라
 12집 새 앨범 『만들레 시집』_기러기 의 9번



시로 노래하고, 노래로 시詩하라

—정태춘·박은옥의 12집 새 앨범 〈민들레 시집〉

2016년 미국의 대중가수 밥 딜런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그가 “미국 노래의 위대한 전통 안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했다”는 것이 선정 이유였다. 스웨덴 한림원의 자신감에 넘치는 결정은 애초에 시의 기원이 노래였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15세기 중반 구텐베르크의 활자 혁명 이후 시는 음유시인의 입에서 활자화된 책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 이후 시는 노래를 잃고 문자 기호만으로 고투하는 외로운 장르가 되었다. 그러나 이 통섭의 시대에 시와 노래가 다시 만나는 현장들이 계속 있어 왔다. 서양에서 그것이 대표적으로 밥 딜런이나 레나드, Cohen, 로렌 같은 가수들의 무대를 통해서였다면, 한국에서 그 대표적인 현장은 정태춘·박은옥의 무대이다.

시보다 더 시적인 가사로, 현실보다 더 강력한 현실 참여로 노래를 불러온 이 아름다운 커플이 곧 새 음반을 낸다. 정태춘·박은옥의 12집 앨범 〈민들레 시집〉이 그것이다. 이 음반에는 정태춘이 작사·작곡한 10곡의 새 노래들이 들어있다. 계간 《시와경계》는 영광스럽게도 이 음반이 오는 6월경 출시되기도 전에 독자들께 이 앨범의 전국 노랫말을 공개하는 기회를 얻었다. 《시와경계》에 이런 큰 선물을 주신 정태춘·박은옥 님께 이 자리를 빌려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에 《시와경계》는 이번 2024년 봄호와 여름호 두 차례에 걸쳐 ‘정태춘·박은옥 기획 특집’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봄호에는 정태춘·박



은옥의 약력과 더불어 새 음반의 전체 가사를 공개하고, 여름호에서는 이 음반에 대한 비평적 글이나 인터뷰를 통해 새 앨범의 문화사적 의미를 더욱 깊게 짚어볼 것이다.

정태춘·박은옥의 이번 앨범은, 정태춘의 표현을 따르면 이들이 “한국 문학에 진 빛을 갠 중대한 계기이자 방법의 하나라 한다. 그의 표현만큼 이번 앨범은 가뜩이나 시에 가까웠던 이들의 노래가 이제 그 자체 시가 되어버린 지극한 경지를 보여준다. 앨범 타이틀도 <민들레 시집>이다. 정태춘은 이번 앨범을 통해 그 어떤 대중성에 대한 야합도 없이 시와 노래의 아름다운 깊이로 들어가 버렸다. 이번에 《시와경계》을 통해 사전 공개되는 노랫말들을 읽으면서 곧이어 나올 이들의 노랫가락들을 저절로 흥얼거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해본다. 이후에 이들의 음반이 출시되어 《시와경계》에서 이번에 공개한 가사들과 합쳐진 노래들을 직접 들을 때,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와 노래가 하나가 된 ‘장르 너머의 장르’로서 이들 음악의 아름다운 지평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정태춘·박은옥 님께 다시 감사드리며, 그 자체 이미 탁월한 시인 이들 새 음반의 노랫말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편집부)

12집 새 앨범 『인들레 시집』 노랫말

기러기 외 9편

정 태 춘

기러기 날아가는 저 들관 해질녘
멀리 울려 퍼지는 총소리를 들었니
소년은 그 들관을 달리고 마을엔 저녁 연기 깔리고
바람도 없이 물 빠지는 갯벌 소년은 안 돌아오고
기러기 때 날아간다
기러기 때 날아간다

앞집 어린누이는 물 건너 시집가고
늦가을 텅빈 마당 가 축부쟁이 여태 피고
큰댁 할아버지 엄총 사냥 나가고, 늙은 포인터 앞세우고
아버지는 객지에서 돌아오고 소년은 아직 안 돌아오고
기러기 때 날아간다
기러기 때 날아간다

가물가물 먼 들관 끝 썰물 갯벌 물 빠지고
깊은 도랑 천둥소리로 간척지 장독 무너지고

붉은 나뭇가지들 어둠이 덮고 물 건너 산 더욱 멀어지고
할아버지 개를 따라 돌아오고 소년은 아무데도 안 보이고
기러기 때 날아간다
기러기 때 날아간다

2022. 10

도리 강변에서

오래 잊혀진 나무에 배는 없고 나는 거기 지는 해 바라본다
오늘이 며칠이나고 내가 내게 자꾸 묻는다
강은 깊은 산 휘둘러 흘러와 여주 도리 그 강둑길을 지나
뽕안 노을빛 꿈길 같은 서쪽 마을 너머로 사라지는구나

다시 생각한다, 그 때
어느 산길 끝에서 내가 본 것은 "길이 없습니다"라는 작은 간판
그리고,
그 안에 은밀히 숨겨져 있던 두 노인의 조용한 거처
돌아나오다 돌아나오다 이렇게 끝일까 생각했었다
그 산길 계곡 물 소리 들으며 뛰어 내려오다 서 있다 했었다
오... 계절 깊어가고
오... 그 집, 문득 숲이 되어 있었다

어둑 어둑 이 선생네 양계장 어린 개들이 사웃 꼬리를 흔들고
그래,

악수를 나눈다는 것도 그저 무심한 일이었다고 해두자
들어온 길로 다시 나가야 한다고 어둑이 스밀 스밀 짓드는구나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없단다, 다만
길이 여기 저기로 흩어질 뿐
오... 도리 강변 노을 지고
오... 그강 어둑 속으로 흘러가고

2022. 4

나의 범선들은 도시를 떠났다

저 하얀 범선을 타고 내 유년의 바다로
저 하얀 범선을 타고 내 전생의 바다로
허나, 그 유년의 바다 너무 알고
전생 같은 것 어디 있겠느냐 오래 전,
배는 폭풍의 바다를 건너와
항구도 없는 도시 번두리
어느 생선구이 집 어둔 계단 아래
작은 쪽창에 오래 붙박혀 있구나
오, 하얀 돛 필력이다
누가 또 저 배를 보았다 하느냐

그 집 주차장 작은 마당에 햇살 내리고
현관의 오래된 화분들 노랑꽃을 피우고
그래, 거울이 너무 길었구나
그래, 이제 새 바람이 불어야지
다시 만조의 과도가 도착하면

반도의 풀과 꽃씨를 심은
배는 무거운 돛을 끌어 올리고
계절풍에 하얀 돛을 펼치리라
오, 절벽의 큰 바위 해안
내 안에서 바다 일렁인다

저 하얀 범선을 타고 내 유년의 바다로
저 하얀 범선을 타고 내 전생의 바다로
허나, 그 유년의 바다 너무 알고
전생 같은 것 어디 있겠느냐
불모의 시멘트와 아스팔트
도시는 메마른 숲을 이루고
여기도 누군가의 유토피아
저 배, 돛을 올리고 있구나
오, 더운 바람이 불고
푸른 바다 일렁인다

오, 푸른 바다 일렁이고
바다에 범선들 가득하구나

2022.9

엘도라도는 어디

저녁 햇살 따사로운 고속도로 붐비는 휴게소
거기 가득 울려 퍼지던 피리 소리는 어디
화려한 깃털 의상과 애잔한 음악 소리
구슬픈 그 멜로디들은 어디
자동차들이 즐지어 들어오고 나가고
누가 잃어버린 낙원의 신화를 얘기할까
안데스의 바람에 휘감기던 오창 휴게소
오, 엘도라도로 가는 길
오, 잉카의 노래들은 어디
오, 그 때 그 사람들은 어디

모두 마스크를 단단히 쓰고 차에서들 내려
음, 식당으로, 편의점으로
그들이 노래하던 자리에선 누군가 색소폰을 불고
모두 바쁘게 그 앞을 지나가고
머리 길게 땅아 내린 셋파란 하늘의 사내들

그강변의 한 시절

하얀 산백 아래의 말 수 적은 사람들
스피커에서 가늘게 떨리던 엘콘도르 파사
오, 협곡의 콘도르들을 부르던
오, 잉카의 노래들은 어디
오, 그 때 그 사람들은 어디

오늘은 노을도 변지지 않는구나
그들의 노래도 들리지 않는구나
멀고 먼 산 구름 걷힌 마추픽추
오, 그 산정의 피리소리
이제는 트로트 흐르는 휴게소
오, 그 때 그 사람들은 어디

모든 길 위에 하나 둘 별이 뜨면
오, 그 엘도라도는 어디

2022. 4

보슬비 소리에 등불을 켜니 온 산새들 내리와 왁자지껄
새벽 안개는 꿈짜기를 감추고 닭 울음 소리 산정을 깨우는구나
가을 강 하얀갈대 밭 침묵처럼 다 쓰러지고
안개 아래 차가운 강물 뒤도 안 돌아보고 흘러만 가고
남한강 대교 한적하고 그 산길 굽이 돌아
서울로 가는 길, 이 노래만 불렀지

서울을 등지고 남쪽 내려왔더니 강은 무심히 북으로 흐르더라
배는 물가에 묶여 있고 그 곁으로 물고기들 더 멀리 거슬러 내려가고
숨던 꽃씨 한 움큼 움켜쥐고 길고 가녀린 꽃대로 종일 흔들리는
이제 그만 놓아라 놓아주어라, 마당 가의 가을 민들레
남한강 대교 한적하고 그 산길 굽이 돌아
부른 가는 길, 그 강변의 한 시절

밭둑 옹매이 키 큰 뿔나무 점점 비닐 한 폭 높은 가지에 매달고
저녁 내내 눈보라 속 깃발처럼 흔들고 있었지

별은 가까이 내 머리 위에 빛나고 여기 또한 그 별들 중의 하나임을
알지 못했네 알지 못했네, 겨울 고라니들이 산에서 내려왔네
남한강 대교 한적하고 그 산길 굽이 돌아
술미 가는 길, 그 강변의 한 시절

2022. 10

유월 마포에 내리는 비

올 여름엔 파란 수국 꽃을 기다리지 않겠다
아직 내 젖은 발목만큼도 올라오지 못한 어린 잎새들
전쟁 같은 폭우 장마에 강물 흐르는 주택가
멀리 포성과 섬광이 멎고 문득 지리멸렬해지면
그 갯벌 키 작은 갈대 밭 붉은 다리의 어린 농게들이
질퍽한 각자의 참호에서 간지러운 햇살 기다리리라
오, 서기 이천 이십 이년
유월 말일, 오후 세 시

누가 참혹한 장마 전선에서 붉은 피를 흘리고 있느냐
강북 강변 낮은 도로변엔 능소화 모두 널부러졌다
골목길 투명 비닐 봉지, 갈증의 물병들이 떠내려가고
요란한 응급차들이 장대비 양화로 커브길을 질주한다
서해 바다 해안길 마다 휴전의 썬선 무너진 담장들
거기
하얗고 또는, 새파란 수국 꽃들이 흐드러지리라

오, 서기 이천 이십 이년
유월 말일, 오후 세시 삼십 분

뚝 부러진 가로수 가지 아래 통신선들이 흐느적거리고
남서풍에 구름이 몰려오고 태풍 경보 다시 발령되는 사이
낡은 연립들 여전히 씩씩하게 유리 빌딩들 곁에서 있고
화단의 바람 잠든 사이 수국 잎새 하나 더 틈우리라

그 갯벌 키 작은 갈대 밭 붉은 다리의 어린 농게들이
질푽한 각자의 콧호에서 일제히 기어나오리라
오, 서기 이천 이십 이년
유월 말일, 오후 세시 오십 구 분

2022. 7

하동 언덕 매화 놀이

“가는 비에 매화 향내 흩어지고
멀리서 온 손님네들 길 떠난다고 바쁘시고”

봄날은 오래 머물지 않고
주인은 꽃 젖어 근심이라
내가 여기 언제 왔던가
겨우 어제 하룻밤만 같은데
꽃 좋고 고요한 곳 없더라, 쌍계사 스님들이 돌아왔어도
하동 언덕에 봄 매화가 지천이요, 화개천에 그 꽃 물이 흐르는데
오, 봄이로구나
오, 잘 있거라

“천왕봉 안개 걷히지 않고
불일 폭포 찬물 그저 쏟아지고”

봄날은 오래 머물지 않고

마당의 바람 햇살을 휘감는데
 내가 여기 언제 왔던가
 한 오백년 머문 것만 같을데
 꽃 좋고 고요한 곳 없더라, 녹차물 끓이는 소리도 비글비글
 섬진강 은어떼 보이지 않고 산수유 앓다뒹 움트는데

 꽃 좋고 고요한 곳 없더라 누가 떠나도 누가 온다, 그 산 아래
 산사의 목탁 소리 꿈뜨지도 서두르지도 않는데
 오, 봄이로구나
 오, 나는 간다

 오, 봄이로구나
 잘 있거라, 나는 간다

2022. 4

정산리 연가

“나라구 왜 한 때 좋은 날들이야 없었을까”
 대질 버스 도시 아줌마덜 채소밭에 모종 내구
 강물 반짝이며 봄날은 간다

 아침 강안개 낫선 손님들 기척에 물러가고
 그 손님들 낮은 장화 풀 이슬에 다 젖는데
 강물 반짝이며 봄날은 간다

 언제적 청춘이나, 언제적 사랑이나
 강물 소리없이 봄날은 간다

 “나라구 왜 한 때 좋은 날들이야 없었을까”
 앞 산 진달래에 뒷산 땀꾸기 애절한데
 강물 반짝이며 봄날은 간다

언제적 청춘이나, 언제적 사랑이나
강물 소리 없이 봄날은 간다

2022. 4

폭설, 동백의 노래

겨울 강 어디쯤에서 하얀 눈발 날리고 있더냐
누구의 그리움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더냐
세상에 눈물이 넘쳐 깊은 강으로 흐르다
아니다, 아니다,
바람을 타고
돌아오고 있더냐
붉은 동백은 고요 속으로 뚝 뚝 떨어지고
그리워, 그리워요
소리도 없이 날리고 있더냐

세상에 눈물이 넘쳐 깊은 강으로 흐르다
아니다, 아니다,
저녁 숲으로
돌아오고 있더냐
붉은 동백은 적막 속으로 뚝 뚝 떨어지고

그리워, 그리워요,
그 어디서 쏘아지고 있더냐
그리워, 그리워요,
하염없이 날리고 있더냐

2022. 7

민들레 시집

민들레 노랑 꽃 햇살만 기다리고
가늘게 봄비 지나가고
인적 없는 거리 긴 긴 보도블럭 위
너를 닮은 누군가 지나간다
잊혀진 시편들이 췌가에 축삭이고
그리워 하세요, 잊지 마세요 하고
거기 오래 꽃혀 있던 책갈피 자욱처럼
지우지 못해 눈 감고
동그랗게 피었다 바람에 흩어지는
민들레 하얀 봄 길 걸어간다

봄은 멀리서 오고 누군가 함께 오고
따사로운 햇살 그림자처럼
고적한 정거장 오래된 벤치 위
바람만 잠시 머물고 있구나
그 옛날 연인들이 아픈 줄도 모르고

그리워 하세요, 잊지 마세요 하고
일생에 단 한 번쯤 사랑하세요
뜨겁게, 애뜻하게
온몸으로 피었다 결국 꽃대만 남아
오래 흔들리는 민들레야

노랗게 피었다 꿈 같은 씨앗 되어
세상으로 흩어지는 민들레야

2022. 6

** 이 노래들은 2024년 8월 인터넷 음원 사이트에 공개, 발매할 예정입니다.

노트

아, 기구한 나의 노래들

정태춘

오랫동안 노래를 만들지 않았다. 그리곤 다시
노래를 만들게 되고, 그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거기서 골라 새 앨범을 발표하게 되었다
아, 기구한 나의 노래들..

1년 여

노래 만들기에 매달려 있었다. 세삼스럽게
정말 좋은 노래를 만들고 싶어. 새벽마다 기타를 들고 앉아
새 노래들을 만들었다
나의 노래는 음악일까, 시일까. 나의 노래는
문학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오랫동안 나의 눈에 끌어왔던 이 땅의 문학적 영감을 이제
다른 누군가의 눈으로 흘러들게 할 수 있을 만큼.

《시와경계》의 초대를 받아 그것들 중 10 편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어디가 시와 노래의 경계일까요, 노랫말과 문학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문학은 노래보다 고급진가요, 노랫말은 문학의 하류인가요..

모르겠다

음악과 육성이 다 빠진, 벌거숭이 텍스트로
나의 새 노래들을 여기
풀어 놓는다.

우주, 세계는 끝없이 유동적이고
인간은 거기 부유하고
끝없이
분투한다
용인할 수 없는 모순과 답 없는 갈등 속에서, 참혹한 고통과 겨우
자랄한 희열들 속에서
생존에 꼭 필요한 건 명량 척면 밖에 없다고 농이나 치면서, 하루
하루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 나의
노래.

《시와 경계》에 감사드립니다.



정태훈 경기도 평택 출생. 1978년 1집 앨범 《시인의 마을》로 데뷔. 한국대중음악상
공로상 수상.

정태훈 박은옥 프로젝트

- 시대와 인간을 노래한 한국의 대표적 포크 뮤지션들이다.
- 1978, 1979년에 각각 <시인의 마을>과 <회상>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 80년 결혼 후 음악적 동료이자 삶의 동반자로 노래 활동을 함께 해 왔다.
- 시적 서정성 짙은 창작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모순과 그 저항을 노래와 직접 참여로 표현하고 실천해 온 문화운동가이다.
- 1984년 4집 <떠나가는 배> 이후 부부 공동의 이름으로 2012년 11집 <바다로 가는 시네버스>까지 8장의 앨범 발표하였고, 2019년에는 정박 부부의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는 앨범, 콘서트, 전시,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태훈 박은옥 40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 정태훈 박은옥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joung-park.com>
- 정태훈 박은옥 공식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14-yYxPABt16cov1knjzg/>

정태훈

- 1954년 평택 출생. 평택고등학교 졸업.
- 사회성 짙은 '한국적 포크'를 추구해 온 싱어송라이터이다.

- 1978년 첫 앨범 〈시인의 마을〉을 발표하면서 데뷔, 1979년 MBC 신인가수상과 TBC 가요대상 작사상을 수상하였다.
- 서정성과 서사성을 아우르는 문학성 짙은 작품들을 발표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음유시인으로 불린다.
- 음악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 참여 활동에 적극적인 문화운동가이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1990년부터 6년 간 〈가요 검열제 철폐 운동〉을 전개하여 1996년 헌법재판소의 '가요 사전심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일이다.
- 1996년에 〈민족예술상〉 (박은옥과 공동 수상), 2007년에는 〈한국대중음악상〉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 2000년 경부터 노래 창작을 접고 〈붓글〉 작업을 하고 있으며, 2019년에 40주년 기념 앨범이자 12번째 앨범 〈2019' 사람들〉을 발표하였다.
- 40여 년간 100여 곡을 발표한 상어송라이터로서 주요 곡으로는 〈춧불〉, 〈떠나가는 배〉, 〈북한강에서〉, 〈92년 장마, 종로에서〉, 〈5.18〉 등이 있다.

박은옥

- 1957년 서울 출생. 마산여고 졸업.
- 섬세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특별한 호소력을 지닌 포크 싱어송라이터이다.
- 1978년 정태춘의 작품들로 데뷔 앨범 〈희상〉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 결혼 후 정태춘과 함께 솔로곡과 듀엣곡이 담긴 앨범을 내며 활동하였으며, 90년대 가요검열제 철폐를 이끌어낸 공로로 정태춘과 공동으로 〈민족예술상〉을 수상하였다.
- 2012년 10년 만에 발매한 11집 〈바다로 가는 시내버스〉를 통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맑은 서정성을 되살리며 울림 깊은 목소리를 전해주고 있다.
-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이에게〉 〈봄송아〉 노랫말을 썼으며, 〈하늘 위에 눈으로〉 등의 자작곡이 있다.

1954년

- <정태춘>은 경기도 평택 도두리에서 5남 3녀의 일곱째로 태어났다.

1957년

- <박은옥>은 서울에서 출생. 7세 무렵부터 마산에서 자랐다.

1967년

- <정태춘>은 평택중학교에 입학하여 현악반에서 바이올린을 배우며 음악을 시작했다.
- <박은옥>은 사촌 오빠들이 기타 치는 것을 어찌 너머로 배우고 기타를 익혔다. 중학교 때 잠시 바이올린을 배웠다.

1972년

- <정태춘>은 음악 대학 낙방 후 서울에서 재수를 했다. 혜세와 쇼펜하우어에 심취했다. 입시를 몇 달 앞두고 서울에서 대학 진학 준비를 중단하고 밀양으로 떠났다.

1974년

- <박은옥>은 경남 마산 여고 시절, 기타를 치며 노래하기 시작. 선배와 듀엣 활동을 했다. 당시 전국교교를 순회하는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학교 대표로 노래했다.

1978년

- <정태춘> 군(전투경찰) 입대. 인천과 고양경찰서 기동타격대에서 군

무했다. 그의 대표적 노래 '처해에서 '시인의 마을' 사랑하고 싶소' 등을 군대에서 만들었다.

1978년

- 군 제대 후, 경음악평론가 최경식의 소개로 서라벌 레코드사와 인연을 맺었다. 11월 <시인의 마을>을 타이틀곡으로 첫 앨범을 발표했다.
- <박은옥>은 부산의 음악다방에서 디스크 자기(DI)로 활동하다 가수 최백호의 권유로 상경. 서라벌레코드사에서 정태춘을 만났다.

1979년

- <박은옥>은 <정태춘> 작사 작곡의 작품들로 첫 앨범 <희상>을 녹음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정태춘>은 '춧불'로 MBC 신인 가수상과 TBC 방송가요대상 작사상을 수상했다.

1980년

- 2집 앨범 <사랑과 인생과 영원의 시>를 발표했다. 5월 정태춘 박은옥 결혼. 박은옥은 2집 <양단 몇 마음>을 발표했다.

1981년

- 딸 <정새난슬>이 태어났다. (현재, 싱어송라이터와 일러스트레이터, 에세이스트로 활동)

1982년

- <정태춘>, 국악 반주의 가요 작업으로 3집 앨범 <우네>를 발표했다

1983년

- <정태춘 박은옥>, 지구레코드와 4년 전속.

1984년

- 4집 앨범 <떠나가는 배/사랑하는 아에게>로 재기했다. 이 앨범은 <정태춘 박은옥>의 첫 공동 앨범이다.

1985년